

일본의 의류 제품 시장을 쾌적·안심·안전의 힘이

새롭게 만들어 <1/2>

일본의 의류 제품 시장에서는 ‘쾌적(快適), 안심(安心)·안전(安全)’에 초점을 맞춘 상품의 니즈(needs)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흡습 발열 기능 이너(吸濕 發熱 機能 inner)’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되어 있으며, 2009년 겨울에도 시장을 휩쓸었다. 이와 같은 호황의 불씨 역할을 한 규모가 큰 SPA(어패럴 製造 小賣業)에 이어, 양판점이나 전문 어패럴 점포들도 이 흐름을 따라 가고 있다. 최근에는 드레스 셔츠(dress shirts)와 같은 다른 아이템에서도 기능성을 찾는 움직임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면, 왜 이다지도 쾌적이나 안심· 안전을 원하는 상품이 시장에 나오고 있을까? 대답은 하나뿐이다. 봄을 이루기 훨씬 전부터 일본의 방적들이 훌륭한 기능성 섬유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상사들도 해외로부터 훌륭한 소재를 일본으로 수입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현재까지 축적된 소재의 힘이 현재의 시장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다음은 쾌적과 안심·안전으로 제목을 달고, 일본의 방적이 그동안 준비해 온 기능 소재나 수입한 최신의 쾌적·안심·안전 소재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 다이와보노이 - 섬유 제품에서 의약품까지 종합 제안

다이와보노이는 위생·메디컬 분야에서 위생 제품에서 제균제(除菌劑)까지 종합적인 상품을 더욱 열심히 제안하고 있다. 금속 프탈로 시아닌 특수 가공 제품(金屬 phthalocyanine 特殊 加工 製品)인 ‘알레르캐처 AD(Allercatcher AD)’뿐만 아니라 제균제인 ‘스자크’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항 알레르기 물질 기능(抗 Allergy 物質 機能) 등을 갖고 있는 알레르캐처 AD는 내의나 ‘튜브 서포터(tube supporter)’ 외에도 다이와보 어드밴스(advance)의 ‘챔피언(champion)’ 브랜드 어린이옷에도 이 소재가 채용되는 등 확실히 실적이 커지고 있다. 내의나 서포터는

의료 기관(醫療 機關)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판매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 문부 과학 장관상(文部 科學 長官賞)도 수상하였다. 금속 프탈로 시아닌 가공에 의한 기능 가공 연구도 대학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황사에 섞여 있는 유기 물질을 무해화(無害化)하는 등의 연구를 하고 있다.

2009년 2월부터는 의사(醫師)로 구성된 학회나 간호사 학회, 감염 방지 연구회(感染 防止 研究會)에도 참가하고 있으며 그들과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최근에 제균제인 스자크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수도물에 녹여 사용하는 ‘차아염소산계 제균제(次亞塩素酸系 除菌劑)’로 알코올(alcohol)계나 염소계의 결점을 보완한 제균력과 안전성이 특징이며 편의성(便易性)과 보존성도 매우 좋다. 위생 관련 상품의 패키지 제안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생산은 도야마현(富山縣)의 의약품 메이커가 담당하고 판매를 다이와보노이가 맡고 있다. 알레르캐처 AD의 판매를 통하여 제휴를 깊게 하고 있는 의약품 도매상과도 협력 체제를 만들었다. 앞으로는 식품 분야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 첨가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만으로 생산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 시키보 - 기능과 쾌적 모두 살리고 제균·항바이러스 가공도 확대

시키보는 다채로운 기능 소재를 판매하고 있다. 2010년기부터 땀 얼룩 방지 가공인 ‘아세도라’와 면 100% 형태 안정 생지(綿 100% 形態 安定 生地)인 ‘논프레스(non-press)’를 새롭게 내놓았다. 이들은 모두 기능과 쾌적성에 중점을 둔 소재이다. 또한 청결을 극도로 원하는 데에 대하여 제균 가공인 ‘노모스(NOMOS)’와 항바이러스 가공한 ‘플루텍트(FLUTECT)’도 계속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

아세도라는 니트 생지의 ‘편성(編成) 코’를 막지 않는 특수 수지 코팅(特殊 樹脂 coating)을 한 편면 발수 가공(片面 撥水 加工)이다. 피부에 접촉한 면에서만 수분을 흡수(吸水), 확산(擴散)함으로써 표면 쪽으로는 침투하지 않는다. 수직 편성 코를 막지 않으므로 통기성이 좋고 찌든 느낌을 억누른 땀 얼룩 방지 가공이다.

논 프레스는 원사, 제직, 가공에 심혈을 기울여 면 100%이면서도 W&W성(wash & wear 성)을 3.7급(級)까지 만들어낸 형태 안정 생지이다. 역시 흡수성과 통기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통의 수지 가공에 의한 형태 안정 소재와 비교하여 쾌적한 착용감을 모두 살리

고 있다.

시키보는 이 이외에도 추동 소재(秋冬 素材)로서 셀룰로스의 발열 기능을 응용한 ‘서모스톡(thermostock)’, 태양광을 열로 바꾸는 ‘솔라-기어(Sola-gear)’ 등과 같이 쾌적과 기능을 모두 살린 소재를 여럿 갖추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안심·안전 소재에서는, 사회의 청결을 찾는 경향에 대응한 제균 가공인 노모스나 항 바이러스 가공인 플루텍트를 채용하는 곳이 늘고 있다. 노모스는 파자마(pajama)나 침장(寢裝), 식품 백의(食品 白衣)를 포함하여 유니폼 등에서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마스크로 주목을 받은 플루텍트도 최근에는 장갑, 타월, 농업 작업복 등의 유니폼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시키보에서는 “세탁 내구성이 좋은 점을 살린 분야에서도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말하고 있다.♣